

弘窩 李斗勳의 삶과 학문

이 세 동*

차례

1. 머리말
2. 弘窩 李斗勳의 삶과 배움
3. 弘窩의 학문세계 개관
4. 發問貢對를 통해 본 弘窩의 『중용』 이해
5. 맺음말

【국문초록】

홍와 이두훈은 조선말에 태어나 일제 초기에 세상을 떠난 경상도 고령 출신의 유학자이다. 당대의 거유였던 한주 이진상에게 배워 학문적 소양을 쌓아 그의 8대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다. 그는 학문과 대내외적인 활동을 통해 당시 고령 유림의 중심인물이었을 뿐만 아니라 영남에서 명망이 높던 선비였다. ‘心卽理’로 대표되는 한주의 학설이 이단으로 비판받을 때 스승의 학설을 고수하며 적극적으로 해명하여 유림의 지지를 받았으며, 동문들이 시류에 편승하여 스승의 문하를 떠나갈 때도 흔들림 없이 지조를 지켰다.

홍와는 모든 방면의 학술에 일정 정도의 성취를 이루고 있지만 특히 예학에 뛰어나 예설과 관계된 서간문을 많이 남기고 있는데, 조리가 정연하고 명쾌하다. 400여 수의 시를 남길 만큼 문학적인 소양도 갖추었으나 輓詩나 贈答詩 등 필요에 의한 목적성의 작품들이 많다. 성리학자들이 詩作에 전념하지 않던 전통을 따라 개성적인 감흥을 기탁한 작품을 별로 남기지 않았지만 빼어난 意境의 작품들이 더러 보인다.

* 경북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조선이 망하고 난 뒤 홍희는 우리 역사를 정리하면서 치욕의 세월을 보냈다. 고조선부터 조선 중종 2년까지 역사적인 사실을 편년체로 정리한 『東華世紀』는 그의 역사학적 안목과 소양을 웅변하고 있다. 아직 역사학계에 소개되지 않았는데 연구가 필요하다.

홍희는 성리학자답게 『중용』에 대한 이해가 깊었다. 중용의 자체 논리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중용』의 논리구조와 성리학적 이해 등 다양한 측면에서 『중용』을 이해하고 있다.

주제어

이두훈, 이진상, 성리학, 한주학파, 예학, 『東華世紀』, 發問眞對, 『중용』

1. 머리말

弘窩 李斗勳(1856~1918)은 조선말에 태어나 일제 초기에 세상을 떠난 경상도 고령 출신의 유학자이다. 寒洲 李震相(1818~1886)에게 배워 洲門八賢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일컬어지고 있으며 축적된 학문과 대내외적인 활동을 통해 당시 고령 유림의 중심인물이었을 뿐만 아니라 영남에서 명망이 높던 선비였다. 그러나 사후 그의 삶에 대한 적극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아울러 학계에는 전혀 소개되지 못하였다. 다만 최근에 한주학파에 대한 학계의 관심과 함께 주문팔현의 한 사람으로 소개되기는 하였으나 성명이 오르내리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생전의 명성에 어울리는 연구는 물론이고 생애에 대한 기본적인 소개도 전무한 형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고는 학계에 소개하는 수준에서 홍희를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의 연구가 없기 때문에 문집과 家藏 자료 등 1차자료를 토대로 홍희의 삶을 추적하고 그의 본령인 학문세계를 조명할 것이다. 그는 성리학을 비롯한 역사학·예학·문학 등 다방면에 걸쳐 일정한 성취를 이루고 있기에 분

야별 연구가 가능하지만 본고에서는 최초의 시도라는 상황에 따라 이 모든 분야를 개괄하는 수준에서 그칠 것이다. 다만 최초라고는 하지만 넓게만 이야기하고 그친다면 깊이를 살피기 어려우므로 그의 서간문 한 편을 분석하여 부분으로 전체를 헤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다.

2. 弘窩 李斗勳의 삶과 배움

李斗勳의 자는 大衡이고 호는 弘窩이며 관향은 星山이다. 그의 집안은 명문세족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성산이씨 大宗家의 세거지였던 館洞에서 학문과 절의를 대대로 이어오던 고령의 대표적 사족집안이었다. 홍와의 9대조 文龍(菊圃)은 형 見龍(竹圃) 및 아우 澤龍(梅圃)과 함께 寒岡 鄭述(1543~1620)의 문인이 되어 ‘泗門模範’¹⁾의 명망이 있었다고 하니 굳이 홍와의 家學 연원을 이야기한다면 한강을 통하여 퇴계·남명과 이어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홍와는 1856년에 漆谷의 上枝村 외가에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行儀와 才氣가 출중하여 부친의 기대가 컸다. 아들의 자품을 눈여겨 본 부친 寅漢은 저명한 선비 金希鎭(惺齋)을 독선생으로 초빙하여 홍와를 가르치게 한다든가 당시의 명망가 溪堂 柳疇睦(1813~1872)의 문하에 나아가게 하는 등으로 학문을 독려하며 후일을 기대하였다.²⁾ 12세에는 고령현의 백일장에 참여하여 장원하였는데 고령현감 李秀謙이 특별히 불러 칭찬하였다.³⁾ 어린 시절부

1) 『寒洲全書』1(아세아문화사 영인, 1980), 776쪽, 「三圃李公行狀」. ‘泗門’은 寒岡의 문하를 말한다.

2) 『弘窩先生文集』2(경인문화사 영인, 1974), 477쪽, 「附錄·家狀」: “或拜禱于天曰: ‘願使此兒, 昌大吾門戶.’”

3) 『弘窩先生文集』2, 478쪽, 「附錄·家狀」: “此兒才調出倫, 相貌堂堂, 侂日功名未可量也.”

터 두각을 드러낸 것이다.

홍와는 20세에 당대의 거유인 寒洲 李震相의 문하로 들어간다. 한주의 거주지였던 성주의 大浦(속칭 한개마을)에 장기간 머무르며 배우던 홍와는 이해에 성주의 남쪽 雲山으로 집을 옮긴다. 지리적으로 한개와 가까우며 학문에 정진할 수 있는 안정된 공간이 필요했을 것이다. 한주와의 만남으로 인해 삶의 방향이 정해진 것이다. 후일 한주가 별세하고 난 뒤, “처음에는 위씨집 아들이었더니, 끝내는 공자의 문도가 되었다네. 가르쳐주신 은혜 나누어주시는 은혜와 같아, 하늘같은 그 은혜 끝이 없어라!”⁴⁾ 하며 애통해 할 만큼 홍와의 일생에 있어 한주의 영향은 절대적이었다. 이후 홍와는 한주의 가르침을 배우고 지켜 한주의 학설이 이단으로 몰릴 때도 일관되게 스승의 학설을 辨誣하며 한주학파의 중심인물이 된다. 그가 后山 許愈(1833~1904)·勿川 金鎮祐(1845~1908)·侂宇 郭鍾錫(1846~1919)·膠宇 尹胄夏(1846~1906)·紫東 李正樸(1846~1875)·韓溪 李承熙(1847~1916)·晦堂 張錫英(1851~1929) 등과 함께 洲門八賢으로 운위되는 것이 우연이 아닌 것이다.

한주는 弱冠의 홍와에게 ‘大衡’이라는 자를 지어 주고 字說에서, “대형은 자질이 아름답고 학문에 뜻을 두고 있으니, 쌓고 넓히고 中道를 가려 치우침 없는 도리를 추구할 수 있는 큰 그릇 될 것이다. 무슨 어려움이 있으랴!”⁵⁾ 하며 장래를 축복하였다. 후일의 이야기이지만 홍와라는 호는 한주의 아들 이승희가 지어 주었으니 한주 부자가 홍와의 字號를 모두 지어준 셈이다. 한주의 문하에 들어가고 나서부터 홍와는 과거에 대한 미련을 접고 爲己之學에 전념하게 된다. 다만 부친의 엄명으로 京試에 한 번 응시하였다가 모친상을

4) 『弘窩先生文集』1, 110쪽, 「寒洲先生挽」: “始也韋家子, 終焉闕黨童. 教我同生我, 昊天恩莫窮.” 여기서 ‘韋家子’는 당나라 때 韋中立이 柳宗元에게 가르침을 청한 사실을 원용한 것이다. 유종원의 「答韋中立論師道書」 참조.

5) 『寒洲全書』1, 700쪽, 「李大衡字說」: “大衡質美而志學, 苟能積之累而拓之廣, 擇其中而用其平, 則是於器爲大焉. 何有乎!”

당하여 試券만 제출하고 급히 돌아왔다. 뒷날 이 때 제출한 시권이 뽑혀 覆試에 응시할 기회가 주어지고 고령현감과 주변 사람들이 모두 응시를 권하였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양친이 모두 돌아가셨으니 영광을 바칠 곳이 없다 하고 나아가지 않자 당시의 큰 선비였던 晩求 李種杞가 「漢水詩」를 지어주면 찬탄하였다.

31세에 스승 한주가 별세하여, 달려가 상사를 주선하고 예에 따라 心喪을 입었다. 이즈음 그는 향로동에 작은 집을 짓고 속사에 초연한 선비의 삶을 살고 있었다.

卜築香爐洞	향로동에 집을 짓고
數椽新架小山前	작은 산 앞 조출한 집 새로 지었네.
只爲安心不爲仙	마음자리 다스릴 뿐 신선될 뜻 아니라네.
紫煙石竈恒時雨	돌솥엔 자주 연기 비는 늘 내리고,
明月氷壺自在天	얼음 단지 밝은 달 여유로운 하늘.
手裏琴書餘韻在	거문고와 서책에는 여운이 남아 있고,
意中賓友舊筵圓	마음 속 옛 친구 단란한 자리.
請君莫笑生涯拙	그대여 이내 생애 초라하다 웃지 마소,
匏匳邯鄲已有年	배우기를 흉내 내어 세월이 쌓였다네. ⁶⁾

37세 되던 해에는 거처를 고령현청의 북쪽 鳳東으로 옮겼으며 2년 뒤인 1894년에는 동학군의 소요를 피해 경남 거창으로 이주하였다. 당시 거창에는 곽중석을 비롯한 한주의 문인들이 많았다. 홍와는 이곳에 살면서 동문들과 함께 『寒洲集』 초간본 25책의 교감·간행에 참여하였다. 40세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이 해에 을미사변이 일어나고 단발령이 내려졌다. 이듬해 1896년, 41세의 홍와는 동문인 곽중석·이승희·윤주하 등과 함께 상경하여 대궐문에 나아가 을미사변을 성토했고 단발령의 철회를 요구하는 상소를

6) 『弘窩先生文集』1, 105쪽.

올렸으나 수령이 거부되었다. 부득이 각국공관에 일본을 규탄하는 포고문을 돌리고 귀향하였다. 이듬해부터 고령의 내산에 乃山書堂을 짓고 은거하며 후학을 가르쳤다. 상주하며 배우는 자들이 수십 명이였다.

1902년 5월에 스승 한주의 학설을 이단으로 규정한 통문이 충주의 荷江壇所⁷⁾ 명의로 성균관을 비롯한 전국 유림에 발송되었다. 한주의 문인들은 급히 모여 대책을 논의하고 홍와를 파견하여 실상을 알아보도록 하였다. 홍와는 한주의 문집을 들고 성균관에 가서 교수 및 재생들과의 대질을 통해 辨誣하고, 다시 하강에 가서 壇所가 없음과 公事員들의 이름이 모략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통문이 위조된 것이다.⁸⁾ 원래 통문은 公議를 거쳐 만들어지는 것인

7) 하강단소는 지금의 荷江書院이다. 충북 충주에 있는 서원으로 조선 중기의 문신 홍이상(洪履祥, 1549~1615)의 위패를 봉안하고 있다. 1786년(정조 10) 창건하였다가 1871년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 따라 철거되었는데, 1907년 서원 터에 하강단소를 만들어 향사하였으며, 1974년에 복원하였다. 통문을 낼 당시는 아직 단소가 마련되지 않았을 때이다.

8) 『韓溪遺稿』6(국사편찬위원회 간, 1976), 458쪽, 「商山禍變後哭告先考文·細注」: “壬寅五月, 朴海齡赴原州韓參判耆東葬, 興李中華, 中鳳等, 偽造通文, 列錄時到儒帖, 斥寒洲集爲異端, 二十五日, 赴茶山李都事種杞葬, 發此文, 八月中華中鳳, 復偽作陶山通文, 飛傳一省, 抵于太學, 又與柳萬植, 偽作道南通文, 以攻士論之發明寒洲集者, 十月會商山, 盜取寒洲集一帙火之, 飛文醜誕, 且付先君罰目于校堂.”

『韓溪遺稿』7, 539쪽, 「韓溪先生年譜·細注」: “五月, 海齡等, 赴原州韓參判耆東葬所, 密與幾箇人, 盜用吊客錄, 發荷江壇通文, 毀斥寒洲集, 因赴茶山李種杞葬所, 頒布通文, 又飛通于太學館, 迷惑全國儒林, 先先生門下諸公, 會議于三峯書堂, 派送弘窩李公, 探其虛實, 現無設壇, 自公事以下, 冒錄僞名辨明書, 沓至于本堂, 自太學, 又出辨明書, 而本郡會老堂及尙州玉洞書院, 高靈碧松亭, 答荷江通而責其無理, 偽裝綜露, 取其一帙, 納于燒燬之中, 仍復宣布各邑, 海齡等大慙大怒, 與李中華(即其姻查)等密謀, 發陶山通文, 付道會于尙州鄉校, 痛矣痛矣, 門下諸公以爲, 與無賴之輩, 不可抗爭是非, 只繕整辨誣錄, 略干頒布, 以俟公眼, 先生然之, 可奇者, 目錄一卷, 燼餘脫出, 爲梅湖曹氏持去, 通于本家, 故送基元覓來.”

이상의 자료를 보면 이 사안의 전말을 파악할 수 있다. 한주의 아들인 한계 이승희 측의 기록이기 때문에 표현의 편향성이 없지 않지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1차자료임은 분명하다. 이 일의 주동자인 박해령은 한주의 문인이었으며, 한주 사후에 장편의 만사에서, “先生之生, 學禮聞詩. 爰自精一, 上而軒羲. 洙泗而下, 濂洛之淵. 紫陽是承, 逮我東箕. 陶山之嫡, 派分千枝. 其書棟宇, 其理毛絲. 是紬是繹, 是宗是尸. 筭疏燕居, 洪纖無遺.”(『寒洲全書』1, 902쪽)라고 하여 한주가 유학의 도통선상에서 주자 및 퇴계의 학문

데, 공의를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본인도 모르는 이름들이 올라 있었다. 그 뒤 하강의 공무원들은 자신들의 이름이 冒錄偷名되었음을 확인하는 辨明書를 보내왔으며, 성균관에서도 변명서를 발송하였다. 사안 자체가 조작된 것이기도 하지만 홍화의 변무가 크게 작용하였다.⁹⁾

그러나 이 일을 주도하였던 朴海齡은 다시 李中華·柳萬植 등과 결탁하여 안동 陶山書院의 통문과 상주 道南書院의 통문을 내어 상주향교에서 유림 道會를 개최하고 도남서원에서 한주의 문집 1질을 불태운다. 동시에 한주의 문인들도 時議의 배척을 받게 되는데 특히 성균관과 하강에서 변무한 홍화에 대한 배척이 심하였다. 홍화는 주자가 만년의 僞學黨禁 시기에 침묵으로 일관한 예에 따라 대응하지 않고 내산서당에서 후진을 양성하며 우울한 나날을 보낸다.

1910년 일본이 조선을 강제로 병합하자 홍화는 이미 1908년에 블라디보스톡으로 가 있던 이승회를 따라 망명할 결심을 한다. 1914년에 만주의 봉천으로 가 있던 한계를 방문하여 현지 상황을 살피고 돌아온 뒤, 제자인 黃

을 계승발휘 하였음을 명언하였으나 한주 사후 17년 뒤인 이때 이 일을 주동하였다. 그 뒤 박해령은 일제시대에 중추원참의를 지냈다. 한주집안에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당시 박해령은 도산서원 원장의 직임을 약속받고 이 일을 추진하였다고 한다. 도산서원 측에서 한주에 대해 반감을 가졌던 이유에 대해서는 한주집안에서도 분명히 알지 못하고 있다. 다만 도산의 屏派측 인사가 한주에게 도산서원에서의 講을 요청하면서 屏虎是非에 대해 병파를 지지하는 언급을 해 줄 것을 부탁하여 한주가 講 자체를 거절한 일이 있는데, 이 일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상주의 火變을 주도한 박해령과 이중화는 당시 병산서원의 소임을 맡고 있는 병파측 인물이었고, 유만식 역시 서에 유성룡의 후손이다.

하강의 통문에 대해 당시의 식견 있는 인사들은 외면하였던 듯하다. 경술국치 당시 순국한 퇴계의 후손 李晚燾(1842~1910)는 『響山日記』(국사편찬위원회 간, 1985, 809쪽) 1902년 7월 22일條에서 “하강의 통문은 내가 모르는 일이다. 통문이 오더라도 나는 보지 않을 것이다(荷江通文, 非我所知, 來通吾不欲見云矣).”라고 술회하고 있다.

9) 『弘窩先生文集』2, 28쪽의 「與徐喜叟丙壽」와 30쪽의 「與李子齡夢九」, 31쪽의 「答李教授商永」 등의 서신을 보면 변무의 정황과 공문을 조성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들이 역력하다.

鶴來를 보내 농지를 구입하게 하고 장차 전 가족이 이주할 구상을 하였다. 그러나 1916년 한계가 봉천에서 작고하자 달려가 통곡하고 돌아온 뒤 뜻을 접는다. 경술국치 즈음에 홍화가 지은 시에는 이 시기 지식인의 아픔이 짙게 배어있다.

庚戌七月二十五日	경술년 7월 25일에
俄然如醉忽如狂	갑자기 취한 듯, 문득 미친 듯.
借問如何醉且狂	묻노니 어이하여 취하고 미치는가.
欲辨忘言良久立	할 말 잊고 우두커니 서 있노라니,
無寧眞醉又眞狂	차라리 진정으로 취하고 미쳤으면. ¹⁰⁾

내산서당에서 저술과 교육에 종사하던 홍화는 1918년 63세로 작고하였다. 장지에 모인 자가 7백여 인이었으며, 白巾을 쓰고 腰紵를 두른 문인들이 장례를 주관하였다.

홍화는 만년에 집안과 지역사회의 지도자적 위치에서 국망의 즈음에 유품을 진작하는 일에 종사하였다. 집안에서는 宗契를 구성하여 유가적 가치에 기반한 결속을 다졌으며, 지역사회에서는 향약을 만들어 시행하고 鍾山齋와 道淵齋에서 儒契를 결성하여 고령 유림의 중심인물로 활동하였다. 홍화에게는 전통을 고수하는 성실한 학자로서의 면모가 여실하지만 이러한 활동들로 미루어 經世의 역량 역시 탁월하였던 듯하다. 그의 주변 인물들은 그가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 하였다.¹¹⁾ 끝으로 그의 문인이자 집안사람인 李寅光이 쓴 「家狀」에서 그의 평소 말씀 몇 조를 간추려 소개한다.

10) 『弘窩先生文集』1, 185쪽.

11) 『弘窩先生文集』2, 493쪽, 「行狀」: “嘗聞承熙君曰: ‘大衡可使宰一小縣, 先觀他措置如何, 然後可知其有用也.’ 又嘗聞郭徵君鍾錫曰: ‘六尺之孤, 百里之命, 非人人可託, 而吾黨中大衡近之.’”

선비는 뜻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뜻이 견고하지 못하면 나머지는 볼 것이 없다. (士尙志, 志不堅固, 餘無足觀.)

사람이라면 앓을 투철히 하지 않을 수 없다. 앓이 분명해야 행실이 독실해진다. 忠·孝·敬·義를 제대로 알게 되면 입이 기름진 음식을 좋아하고 몸이 따뜻한 옷을 좋아하듯 저절로 기뻐하며 배우기를 원하게 되는 것이다. (人不可不致知. 知之明, 則行之篤. 苟知忠孝敬義之實, 如口之於芻豢, 身之於輕煖, 安得不悅懌而願學乎!)

'利'의 상대되는 말은 '害'자가 아니다. '利'가 바로 '害'이다. '義'로써 '利'을 대적하게 한 뒤라야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다. 우리 유학의 심법은 바로 이 경계에 있으니 한 번 어긋나면 평생을 그르치게 된다. 거듭 생각하고 살펴야 할 것이다. (利之對待, 非害字也. 利便是害也. 以義敵利, 然後邪正可辨. 吾儒心法, 實在於此界分, 一差便誤平生. 當念念省察.)

앓이 원만하고 행동은 반듯한 것이 옛 군자들의 학문이 진보할 수 있었던 까닭이고, 흐름을 따라 함께 흐려지는 것이 향원이 덕을 해치는 까닭이다. 자주색이 붉은색을 빼앗고 정나라 음악이 바른 음악을 어지럽히는 해독이 기독교나 불교보다 심하다. 오늘날 배우는 자들이 도도한 시류를 좇아가기만 하니 유가의 이름을 내걸고 목가의 행동을 하는 것이다. 부끄럽기 짝이 없다. (知欲圓而行欲方, 前修之所以進學也; 同其流而合其汚, 鄉原之所以賊德也. 紫之奪朱, 鄭聲之亂樂, 害有甚於主耶禪佛. 今世學者滔滔, 皆是儒名墨行, 恥莫甚焉.)

선하지 않은 자가 나를 미워한다면 부끄러울 것이 없다. 다만 선한 자가 좋아하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따름이다. (不善者惡我, 則吾無愧焉. 但恐善者不好耳.)

3. 弘窩의 학문세계 개괄

일반적으로 한말의 유림을 개괄할 때, 학문 경향과 인적 구성에 근거하여

華西學派·蘆沙學派·寒洲學派·艮齋學派의 4개 학파로 구분하곤 한다. 이 가운데 한주학파만이 유일하게 영남학파이고 나머지는 모두 기호학파이다. 영남의 퇴계학파만을 이야기할 경우, 다시 안동의 柳致明(定齋)과 성주의 이진상, 칠곡의 張福樞(四未軒), 창녕의 曹兢燮(深齋), 김해의 許傳(性齋) 등 다섯 학맥으로 구분하기도 하며,¹²⁾ 한편으로는 낙동강 상류의 柳致明·鄭宗魯(立齋) 학맥과 낙동강 중류의 한주학파, 낙동강 하류의 성재학파로 구분하기도 한다.¹³⁾ 한주학파는 이 시기 유학의 한 축이었던 것이다.

한주학파는 독자적인 성리설과 時務論的 의식이 특징적이다. 전자는 ‘心卽理說’로 대표될 수 있고, 후자는 『畝忠錄』¹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심즉리설은 안동·상주 지역 퇴계학파와의 갈등을 일으킬만큼 독자적이었으며, 『畝忠錄』은 官制·科擧·軍政·賦稅·吏胥 등 전반에 걸친 국정개혁론이었다.¹⁵⁾ 한주학파는 기본적으로 斥邪의 입장에 서 있었지만 화서학과처럼 적극적이지는 않았다. 명분과 수구보다는 개혁을 통한 변화를 지향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再傳弟子 가운데 『古代希臘哲學攷辨』을 쓴 李寅梓(省窩: 1870~1929)나 공자교운동을 전개한 李炳憲(眞庵: 1870~1940) 같은 인물¹⁶⁾들이 나와 서양철학을 연구하고 유교의 개혁을 시도할 수 있었다.

이러한 한주학파의 특징에 비추어, 홍와는 시무론적 의식보다는 스승의 학설을 굳게 지켜 계승하는 입장에 서 있었다. 그의 문인 南廷瑀가 쓴 「墓誌銘」의 한 대목을 보자.

12) 금장태, 「영남성리학의 전통과 쟁점」, 『민족문화논총』 11, 1990.

13) 홍원식, 『한주 이진상의 생애와 사상』, 예문서원, 2008.

14) 『寒洲全書』2, 698~759쪽.

15) 우인수, 「한주의 경세론—『畝忠錄』에 나타난 한주의 국정개혁론」, 『한주 이진상 연구』,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편, 2006 참조.

16) 홍원식, 『한주 이진상의 생애와 사상』, 179~185쪽 참조.

상주의 변고를 당하여 아픔을 참고 침묵하며 그들을 상대하지 않았다. 그러나 더욱 정밀하게 강론하고 더욱 명백하게 변석하면서 후일을 기다렸다. 그 苦心血誠이 신명을 감동시킬만 하였으니 師門에 끼친 공이 참으로 크다. 그러므로 논의에서 드러낸 것이 한결같이 스승에게 근거하여, 말씀마다 스승의 견해이며 글자마다 스승의 견해이니 사람들이 程子 문하의 尹和靖(尹焞)에 비겼고, 동문의 제현들이 모두 옷깃을 여미고 받들어 따랐다.¹⁷⁾

‘言言是師說, 字字是師說’이라는 표현은 홍와의 학문경향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현존하는 홍와의 저술들에는 성리학과 관련된 독립된 논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서간 등에서도 성리설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매우 적다. 이는 곽종석·이승희를 비롯한 주문팔현 대부분이 적극적으로 성리학설을 개진하고 있음¹⁸⁾에 비해 이례적이다. 성균관과 하강에서 스승의 학설을 변무하고 유림들을 설득한 사실이나 『朱書類彙』를 편찬한 사실¹⁹⁾로 미루어 보면 분명 성리설에 상당한 조예가 있었을 것이다. 아마 스승의 학설을 계승하고 지킬 뿐 새로운 견해를 제시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 듯하다. 서간문에 보이는 약간의 언급들 가운데 두 조목만 살펴보기로 한다.

근세의 학자들은 주기론을 지나치게 중시하여 본체가 리기를 겸하여 있고, 未發時에도 氣質之性이 있다는 설까지 있게 되었습니다. 아마 기로써 리를 대응시켜 주리론자들이 리를 높이는 것을 결단코 배척하려 함일 것입니다. 제가 듣기에는 하늘에 있는 리도 성이라고 할 수 있고, 사람에게 있는 성도 역시 함께 리라고 할 수 있으며, 리는 기에서 분리될 수 없습니다. 애초에 하늘과 사람이 다

17) 『弘窩先生文集』2, 504쪽, 「墓誌銘」: “及遭商山之變, 雖隱忍含默, 不與之較, 而講之愈精, 辨之愈明, 以俟百世. 其苦心血誠, 足以感動神明, 而有功於師門, 大矣. 故其著於論議者, 一是依倣侘樣子, 言言是師說, 字字是師說, 人擬之以程門之和靖, 而同門諸賢, 皆斂衽推服焉.”

18) 劉明鍾, 『朝鮮後期 性理學』(이문출판사, 1985), 제9장 性經과 心卽理說 참조.

19) 『弘窩先生文集』2, 136쪽, 「書朱書類彙卷尾寄子佺」: “右朱書類彙一部, 是余弱冠時所手抄也. 時余好讀朱子書, 患其篇帙浩大, …… 蓋不比功令家斷章摘句之集也.”

르지 않으니, 하늘의 리에는 기질이 섞이지 않았는데 사람만 유독 기질을 성으로 삼는다는 말입니까?²⁰⁾

주리론의 입장에서 주기론을 비판하고 있다. 본체가 리기를 겸한다는 말을 부정하는 것은 한주의 '심즉리설'에 근거한 견해이다. 한주가 심을 리라고 한 것은 마음에 리기가 같이 있으나 본체를 두고 말한다면 심즉리가 된다는 견해인 바, 홍와에게 있어 본체가 리기를 겸하고 있다는 견해는 부정될 수밖에 없다. 미발시에 기질지성이 있다는 설 역시 주기론자들의 견해인데, 한주는 미발시에는 本然之性만이 있고 已發時에 기질지성이 있게 된다고 보았다. 홍와는 이를 논증하기 위하여 性卽理에 근거하여 하늘의 리에 氣質이 없는데 사람의 성은 기질을 본체로 삼아야 하는가 반문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한주의 학설에 입각한 견해이다.

問 : 성은 리입니다. 그런데 程子에게 性卽氣라는 이론이 있었고 주자는 이를 취하여 『近思錄』에 실어두었습니다. 心도 또한 리입니다. 그러나 우리 동방의 선현들 가운데 心卽氣를 주장한 분이 있고 후인들 가운데 간혹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이 있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答 : 정자가 만세에 공이 있는 것은 性卽理 세 글자입니다. 성을 기라고 한 것은 다만 告子의 말로 인해 기질지성에 통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와 같으므로 두 말씀이 모두 우리 유학에 공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心도 또한 그러합니다. 리를 위주로 심을 말하면 그 본체를 밝히게 되고, 기에 나아가 심을 말하면 질료의 측면을 밝히게 됩니다. 정자가 성을 말한 것이 무슨 해로움이 있겠습니까? 다만 오로지 성즉기·심즉기를大本중지로 삼는 것은 불가할 듯합니다. 나의 견해가 어떤지요?²¹⁾

20) 『弘窩先生文集』1, 511쪽, 「答金振玉·壬寅」: “近世學者, 主氣太重, 至有本體兼理氣·未發時亦有氣質性之說. 蓋其必欲以氣對理, 而深惡主理者之尊理也. 竊嘗聞之, 在天之理, 亦可以謂之性, 在人之性, 亦可以互言理, 理不離氣. 初無天人之別, 則天之理不雜氣質, 而人獨以氣質爲性也?”

21) 『弘窩先生文集』1, 513쪽, 「答南章憲廷變 別紙·丁酉」: “(問) 性是理也, 而程子有性卽

이 서간은 제자의 문목에 별지로 답한 것이다. 질문에서 언급한 정자는 程顯이고 대답에서 언급한 정자는 程顯이다. 한주의 심즉리설을 두고 사람들이 말이 많으므로 그의 제자인 홍와의 견해를 제자가 완곡하게 물어온 것이다. 이에 대해 홍와 역시 완곡하지만 분명하게 대답하고 있다. 심즉기도 부분만을 본다면 틀린 것이 아니지만 본체를 가지고 이야기한 심즉리가 역시 대본종지라고. 이 두 조목만 보더라도 홍와는 한주의 성리설을 한 치도 벗어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弘窩集』은 문인 李寅光 등이 편집하여 1928년에 乃山書堂에서 13권 7책으로 간행하였다. 柳淵龜(恬庵)의 서문과 문인 李相羲 및 삼종질 李徑의 발문이 있으며, 400여 수의 시와 240여 편의 書 등이 실려 있다. 홍와의 학문적 성취는 주로 서간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데, 특히 동문의 선배 許愈의 發問에 대해 대답한 내용이 눈길을 끈다. 허유는 주문팔현 가운데 가장 연장자로서 홍와보다 23세가 많았다. 발문은 스승이나 선학이 후학들을 깨우치기 위해 서면으로 질문하고 후학들 역시 서면으로 답서를 보내는 방식이다. 답서를 받은 발문자는 다시 이를 평가하여 批辭를 보내기 마련이다. 홍와는 53세 되던 1908년에 후산의 吉禮·凶禮·賓禮·軍禮·嘉禮 등 五禮 25조와 樂·射·御·書·數 각 1조 도합 30조의 발문에 대해 답서를 올렸다. 아마 원래의 문답은 이보다 분량이 많았을 것이지만 문집을 간행하는 과정에서 산삭되었을 것이다. 홍와의 답서에 대해 후산의 비사가 어떠하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정연한 논리와 경사를 관통하는 해박한 논거, 물명과 문자에 이르기까지 고금을 아우르는 지식들이 돋보이는 답서이다. 한 조목만 예를 든다.

氣之論，朱子取之，而編入語近思錄中。心亦理也，而我東前賢有心即氣之說，後人或有議之者，其故抑何哉？（答）程子之有功於萬歲者，性即理三字也。若其性即氣之云，特因告子之語，以爲可通於氣質之性。如是則均之謂有功於吾學，可也。惟心亦然。主理言心，以明其本體；就氣言心，以明其當質。如程子之說성언，則固何害之有？但恐不可專以性即氣·心即氣爲大本宗旨。未知何如。”

軍禮 大田

問：우리 동방에는 田禮가 없다. 원래 의전이 없었던 것인가? 아니면 나라가 작아 나랏동산이 없고 강무의 일을 숭상하지 않아서인가?

答：전례는 농사의 해악을 제거하여 위로는 종묘에 제물을 올리고 아래로는 무사를 선발하여 모으는 일이니王者가 폐할 수 없는 예이다. 그러나三代(夏·殷·周) 이후로는 행하는 자가 있다는 말을 듣지 못했으며, 후세에 마음껏 치달리고 오락을 위해 사냥하여 방탕무도함에 이르러서는 전례의 본뜻이 아닐 듯하니 없애는 것보다 못하다. 우리 조선조에는 개국초에 태안과 해주·임실 세 곳에 강무장을 두어 태종 10년과 13년 사이에 자주 전렵을 행하였으며 15년에는 해주의 강무장을 백성들이 경작하도록 하면서, “금수들이 살게 하는 것과 우리 백성들이 경작하도록 하는 것이 어느 것이 나은가?”라고 하였다. …… 그러므로 우리나라에 본래 전례가 없었던 것이 아니지만 태종 이후로 문치가 날로 갖추어져 중시하지 않게 되면서 저절로 사라진 것이다.²²⁾

大田은 『周禮』에 보이는 군례의 일종이다. 거마와 인원을 점검하여 천자가 직접 사냥을 하는 의례이다. 우리나라에 이 의례가 없는 이유만을 물었는데, 田禮가 시행된 본의와 중국도 周나라 이후에는 방탕무도한 사냥만 있었을 뿐 본의를 살린 전례가 없었음을 말하고 조선에는 국초에 전례가 시행되었음을 밝혔다. 중국과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으면 답할 수 없는 내용이다.

홍와는 이처럼 해박한 역사 지식과 안목으로 『高靈誌』와 『東華世紀』를 편찬하였다. 『高靈誌』는 疆界·沿革·坊里·山水·姓氏·土產·土俗·壇祠·

22) 『弘窩先生文集』1, 335쪽, 「答許后山六藝發問·戊子」：“(問) 我東無田禮, 闕典歟? 抑國小無園囿, 且武事不足尙耶? (答) 田禮所以爲田除害, 上以供宗廟, 下以簡集士衆者, 則王者所不可廢之禮也. 然三代以後, 未聞有行之者. 至若後世之馳騁遊獵, 荒逸無度, 竊非田禮之本意, 反不若闕之爲得. 我朝開國初, 泰安海州任實三所, 有講武場, 太宗恭定王十年十三年間, 往往出畋, 十五年以海州場許民耕曰: ‘禽獸居之, 孰與吾民之耕?’ …… 然則我國本亦非無田禮, 而太宗以後, 文治日備, 必以不足尙而自廢之矣.”

公廡·校院·亭齋·寺刹·驛院·烽市·橋店·堤堰·墳墓·政務·故事·文官·武官·生進·蔭仕·學行·文望·儒碩·烈行·守宰·題詠 등 29항목으로 구분하여 그의 세거지인 고령의 자료를 정리한 지방지이다. 상하권 1책 육필본이 미간인 채로 전하고 있다.

『東華世紀』는 홍와의 만년 저술이다. 단군부터 조선까지 우리나라의 역사를 연대별로 기술한 책이다. ‘동화’는 동방의 中華라는 의미인데, 명나라가 망한 뒤 예약문물이 조선에만 남아 있다는 시각에서 취하였다. 13권 6책의 육필본을 후손이 보관하고 있으며 아직 학계에는 소개되지 않았다. 序跋은 없고 권두에 범례만 있다. 紀年은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하고 중국의 연호는 圈注로 처리하였다. 여러 나라가 동시에 존재하던 시기에는 정통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나라를 위주로 서술하였다. 예컨대 위만조선을 마한에 침부한다든가, 삼국시대는 신라의 통일을 정통성으로 인정하여 신라를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先儒와 史家 및 자신의 평론을 구분하여 침부하였으며, 참고서목을 권두에 밝혀두었다. 참고서목은 『海東古紀』부터 ‘大韓每日申報’까지 모두 66종인데, 조선시대 사료가 많다. 수록된 조대를 권차에 따라 일별하면 다음과 같다.

- 권1 : 조 선 世代不可攷 / 歷年 1017년
- 권2 : 후조선 41世 / 歷年 929년
 마 한 9世 / 歷年 202년
- 권3 : 신 라 남해왕~실성왕
 고구려 유리왕~장수왕
 백 제 온조왕~전지왕
- 권4 : 신 라 눌지왕~문무왕
 고구려 장수왕~보장왕 28世 / 歷年 705년
 백 제 전지왕~의자왕 34世 / 歷年 678년
- 권5 : 신 라 문무왕~경순왕 55世 / 歷年 992년

- 권6 : 고 려 태조~정종
- 권7 : 고 려 문종~인종
- 권8 : 고 려 의종~고종
- 권9 : 고 려 원종~충렬왕
- 권10 : 고 려 충선왕~공민왕
- 권11 : 고 려 廢王 禔~공양왕 32世 2廢王 / 歷年 475년
- 권12 : 조 선 태조~세조
- 권13 : 조 선 예종~중종 2년

또한 권2의 마한에는 위씨조선이, 권3과 권4의 삼국에는 가락과 대가야가, 권5의 신라에는 발해와 후백제·태봉 등이 첨부되어 있다. 권13의 조선은 미완본이다. 아마 홍와가 세상을 마칠 때까지 집필하다 완성하지 못한 듯하다. 홍와는 망국의 아픔을 우리역사를 정리하면서 달래고 있었던 것이다.

홍와는 특히 禮學에 조예가 깊었다. 당시의 학자들은 왕복서한으로 학술을 토론하였고, 중요한 내용은 주로 별지를 사용하였다. 문집에 실린 서간 가운데 홍와가 제자나 지인들의 질문에 별지로 답한 서간은 모두 13편인데, 이 가운데 11편이 예학과 관련된 내용이다. 예학 관련 내용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예가 당시인들의 일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홍와의 예학에 대한 깊은 조예도 그 원인일 것이다. 한 조목만 소개한다.

상중에는 禫祭를 지내지 않는다는 여러 선배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생각으로는 끝내 믿을 수 없습니다. 담제는 본디 澹澹平安의 뜻이니 대상 뒤의 담제는 장례 뒤의 虞祭와 같습니다. 어찌 더 무거운 복을 입고 있다 하여 신을 편안히 해드리는 제사를 생략할 수 있겠습니까! 旅軒(張顯光)이 대상 뒤의 담제는 재최복을 입고 있더라도 폐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장례 전이면 비록 더 큰 상의 담제라도 지낼 수 없지만 장례 후라면 재최의 담제라도 참최복중이라고 폐할 수 없을 듯합니다. 우리 先師께서는 일찍이 상중이라도 담제를 지내야 한다고 단언하셨고 許性齋(許傳)도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마음으로 높이고

믿어 의심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니 공께서 헤아려 처리하시기를 바랍니다.²³⁾

아마 질문자는 부친상중에 모친의 담제일이 다가와 지내야 하는지를 물은 듯하다. 담제는 원래 대상 뒤 2개월쯤에 상복이 아닌 담백한 옷을 입고 지내는 제사인 바, 상례의 최후 절차이다. 상사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는 경중이 달라 부친상은 무겁고 모친상은 가벼우므로 모친상중에 부친의 담제는 당연히 지내는 것이지만 부친상중에 모친의 담제는 다소 의혹이 있기 때문에 질문한 것이다. 홍화는 상의 경중에 관계없이 담제의 본의를 살려 거행할 것을 권유하고 있는데, 역시 스승 한주의 견해를 주요 논거로 삼고 있다.

이밖에 별지가 없는 서간에도 예설에 대해 답한 내용이 많아 홍화가 예학에 정심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생략하기로 한다.

『弘窩集』에는 400여 수의 시가 실려 있다. 많은 수도 아니지만 성리학자의 시로서는 적은 수도 아니다. 유형별로 나눌 때 가장 많은 것이 輓詩인데, 140여 수이며, 나머지도 주로 증답류 등 목적성을 띤 작품들이 많고 순수하게 흥취를 기탁한 작품은 적은 편이다. 그러므로 이 작품들을 두고 홍화의 문학적 재능이나 성취를 평가하기는 무리가 있지만 의경이 빼어난 작품들도 더러 보인다. 한 수만 소개한다.

中山橋別姜景器	중산교에서 강경기를 작별하며
欲別難離到此橋	헤어지자 하였거니 차마 못 떠나,
徊徨不渡意迢遙	이 다리 못 건너고 마음만 아득타.

23) 『弘窩先生文集』1, 385쪽, 「答辛參奉泳沚別紙·丁亥」: “諸先輩固有喪中不禫之說. 然愚意終未敢信. 蓋禫本澹澹平安之意, 喪後之禫猶葬後之虞, 何可以身帶重服, 而遽闕安神之祭乎! 旅軒曰: ‘大喪之禫, 不可以齊衰之在身 而廢其事也. 蓋若在未葬, 則雖大喪之禫, 未可行, 若在葬後, 則雖齊衰之禫, 恐不可以斬衰之在身而廢之也. 吾先師嘗以喪中行禫斷之, 性齋許台丈亦有是論, 心嘗尊信而無疑. 故今亦以此奉告, 惟在哀座裁處.’”

江南綠樹雲千里	강남엔 녹음 지고 구름은 천리,
渭北輕塵雨一朝	위수 북쪽 나는 먼지 아침 비에 젖네.
古洞先尋幽鳥約	옛 골짜기 접어드니 산새 먼저 반기고,
名園愁見亂鶯驕	동산엔 피꼬리 어지러워 시름겹다.
把酒臨分春且盡	헤어지자 술잔 드니 봄은 저물고,
芝歌一曲腸堪消	紫芝歌 한 곡조에 창자 에이네. ²⁴⁾

이상으로 홍와의 학문세계를 성리설과 학문적 성취 및 사학·예학·문학 방면으로 나누어 간략하게 소개하였다. 개략적으로 전반에 걸쳐 소개하였으므로 분야별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4. 發問貢對를 통해 본 弘窩의 『중용』 이해

발문공대는 한주 문하에서 즐겨 사용하던 교수법이다. 교수의 과정에서 질문은 주로 학습자가 하기 마련이지만 때로는 스승이 질문을 던져 학습자의 사고를 자극함으로써 사유의 확대를 촉진하기도 한다. 이러한 스승의 發問은 서면으로 주어지고 학습자 역시 충분한 사고를 거친 뒤 서면으로 貢對하게 된다. 혹 구두로 발문하더라도 학습자는 일정 기간의 사고를 거친 뒤 서면으로 답하게 된다. 학습자의 공대에 대해 발문자는 평가하고 보완하기 마련인데 이를 批辭라고 한다. 한주의 「연보」에는 63세에 會輔契 諸生들에게 經史를 발문한 사실과 64세에 역시 회보계 제생들에게 『논어』에 대해 발문한 사실이 실려 있다.²⁵⁾

홍와의 문집에는 홍와가 공대한 서간 3편이 실려 있다. 2편은 한주의 발

24) 『弘窩先生文集』1, 84쪽.

25) 『寒洲全書』1, 822·823쪽 참조. 회보계는 홍와가 郭暉根·郭燾 등과 함께 곽씨의 선제인 고령의 鍾山齋를 근거지로 결성한 儒契이다.

문에 대해 공대한 서간이고, 1편은 后山의 발문에 답한 서간이다. 후산의 발문은 앞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六藝와 관련한 내용이고, 한주의 발문은 경사 관련 15조 발문 1편과 『중용』 관련 21조 발문 1편이다. 여기서는 「上寒洲先生發問貢對·附批辭」²⁶⁾의 편명으로 문집에 실려 있는 『중용』 관련 서간을 분석, 홍와 학문의 일단을 살펴보기로 한다.

주자가 집대성한 성리학은 태극을 모든 존재의 원인으로 설정하고 그 원인의 본원적인 법칙성을 理라고 하였으며 리에 의한 물질의 형성과 운동을 氣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정비한 우주관과 세계관을 바탕으로 인간의 심성 문제를 규명한 뒤, 도덕적 실천을 추구하는 수양론의 체계를 확립하였다. 이처럼 새롭게 정비된 유학이기에 오늘날 新儒學이라는 명칭을 얻게 되었으며, 주자는 신유학의 교과서로 『四書』를 제시하고 이를 주해한 『四書章句集註』를 저술하였다. 성리학 출현 이후 『오경』 중심의 유학이 『사서』 중심의 유학으로 바뀌었으며, 이것은 유학의 가치 지향이 바뀌었음을 의미한다. 문헌 중심의 유학이 이념 중심의 유학이 된 것이다.²⁷⁾

『중용』은 그 이념의 핵심에 서 있다. 그러므로 성리학 출현 이후 『중용』 읽기는 훈고의 이해 과정이 아니라 성리학 이념의 훈련과정이었다. 한주의 발문과 홍와의 공대는 바로 이 지점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그러므로 여기에는 훈고적 이해와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다. 이 서간의 한주 발문은 대체로 세 가지 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첫째는 『중용』을 통해 성리학설의 이해를 유도하는 발문이며 둘째로는 『중용』 자체의 논리적 이해를 심화시키는 발문이며 마지막으로 『중용』의 구조적 이해를 요구하는 발문이다. 각각을 구분하

26) 『弘窩先生文集』1, 244쪽. 홍와측에서 보면 공대이지만 한주측에서 보면 발문인 이 서간은 한주의 문집에도 「答李大衡別紙·中庸講義」라는 편명으로 실려 있는데, 홍와 문집의 서간보다 많이 산삭이 되어 있다.

27) 이세동 옮김, 『대학·중용』, 을유문화사, 2007의 「〈대학〉과 〈중용〉을 읽기 전 이야기들」 참조.

여 몇 조목씩 살펴보기로 한다.

1) 『중용』의 성리학적 이해

『중용』이 저술될 당시에는 송대처럼 理氣心性에 대한 철저한 인식이 없었지만 송대에는 『중용』을 비롯한 기존의 경서들을 통하여 이러한 개념들을 확립하고 역으로 이러한 개념들을 가지고 기존의 경서들을 재단하였다. 그러므로 『중용』을 성리학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송대 이후 『중용』을 이해하는 전 문화된 방식이었다. 몇 조목을 살펴보자.

문 : 「中庸章句序」 가운데 ‘憂道學’의 ‘憂’와 ‘懼愈久’의 ‘懼’는 기발의 정인가 리발의 정인가?

답 : 도학이 전함을 잃고, 오래될수록 참됨을 잃게 된다면 성인의 근심과 두려움이 저절로 그러함(自然)에서 나오는 것이니 저절로 그러함에서 나오는 것이 어찌 리가 발한 것이 아니겠는가?

비 : 도를 위하여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의리의 공정함이니 리가 발동한 것이다. 저절로 그러하다는 것은 오히려 범범한 듯하다.²⁸⁾

주자의 「中庸章句序」는 유학의 요체를 설파한 명문으로 알려져 있다. 주자는 이 글에서 子思가 도학이 사라질 것을 근심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진실에서 멀어지는 것이 두려워 『중용』을 저술하였다고 하였다. 한주는 자사의 이 마음이 기에서 나온 것인지 리에서 나온 것인지를 물었다. 율곡의 氣發理乘一途說과 달리 퇴계의 理氣互發論 이후 영남에서 줄곧 리발의 일면이 강조되어온 경향에 따라 묻고 대답한 것인데, 홍와는 자사의 그 마음은 리발이며 그 리발은 저절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대답한다. 한주는 이에 대해

28) 『弘窩先生文集』1, 244쪽 : “問 : 序中憂道學之憂, 懼愈久之懼, 氣發之情歟? 理發之情歟? (答) : 道學失傳, 愈久失真, 則聖人之憂懼, 出於自然. 出於自然者, 豈能非理發乎! 批 : 爲道憂懼, 義理之公正者也, 卽此是理發. 自然字卻似泛.”

공정한 의리에서 나온 리밭이라고 수정하고 自然에서 나온 리밭이라는 답변의 모호함을 지적하였다. 한주의 리에 대한 확신을 살펴볼 수 있는 문답이다.

문 : 천명의 성은 사람과 만물이 함께 얻는 것이며 성인이나 범부나 마찬가지로이다. 그런데 장구에서 '各得'이라 하고 '各循'이라 하고 '各有'라고 하여 3개의 '各'자가 있으니 마치 다름이 있는 듯하다. 어찌된 것인가? …… 또한 리기는 서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지만 본원을 두고 논하자면 리가 있고 난 뒤에 기가 있고 품부를 두고 논하자면 기가 있고 난 뒤에 리가 따라와 갖추어진다. 이와 같다면 앞에서는 기를 떠난 리가 있고 뒤에서는 리를 떠난 기가 있게 된다. 리기의 선후를 자세히 이야기할 수 있는가?

답 : 천명의 리는 사람과 만물이 같은 바이지만 다만 부여받은 바의 기에 후박과 편전의 다름이 있어 성 또한 다름이 없을 수 없는 것일 뿐 선악이 있음을 말한 것이 아니다. 아래의 3개의 '各'자는 사람은 사람의 리를 얻고 만물은 만물의 리를 얻으며, 사람은 사람의 성을 따르고 만물은 만물의 성을 따르며, 사람에게는 사람의 도가 있고 만물에게는 만물의 도가 있다는 말이다. 하늘이 명한 바의 성은 같다고 하지만 또한 다름도 있다. 같은 것은 성의 본체를 가리켜 말한 것이요 성 전체를 함께 말한 것이 아니다. 다른 것은 성의 편전을 말한 것이지 본원을 함께 말한 것이 아니다. …… 또한 그 근본을 추구한다면 가려내어 그 오묘함을 이야기함에 먼저 리를 말하지 않을 수 없고, 품부한 것을 두고 말할 때는 형체가 갖추어지지 않으면 리가 걸릴 곳이 없으니 기를 먼저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대체로 선후를 나눌 수 없지만 선후가 없다고 말할 수도 없으니, 선후가 있음을 알고 그 선후가 서로 떨어질 수 없음도 알아야 옳을 것이다.

비 : 말이 정밀하다.²⁹⁾

29) 『弘窩先生文集』1, 245~247쪽 : “問: 天命之性, 人物同得, 聖愚一般, 而章句中, 曰各得, 曰各循, 曰各有, 三箇各字, 若有不同, 何歟? …… 且理氣非相離之物, 而論本原則曰: ‘有理然後有氣.’ 論稟賦則曰: ‘有是氣以後, 理隨而具.’ 如是則先有離氣之理, 後有離理之氣, 其所先后可得詳言歟? (答): 天命之理, 人物所同, 而特所稟之氣, 有厚薄偏全之不同. 故性亦不能無異同, 非有善有惡之謂也. 下此三箇各字: 卽人得人之理, 物得物之理; 人循人之性, 物循物之性; 人有人之道, 物有物之道矣. 其天所命之性, 則謂之同, 亦得異. 亦得同者, 指性之本體而言也, 非並指其爲性者也. 異者, 指性之偏全而言也, 非並指其本原也. …… 且推原其本, 則挑出以言其妙, 不得不先言理也. 至於稟賦, 則若無所

人物性同異論 및 理氣先後論과 관련된 문답이다. 홍와의 답변에 따르면, 人과 物의 성은 本然之性의 측면에서는 동일하지만 氣質之性의 측면에서는 차이가 나며, '각'은 바로 기질지성의 차이를 말한 것이다. 본연과 기질의 기저에는 리기의 문제가 놓여 있고, 리기의 선후를 말하자면 渾淪看과 分開看에 따라 理氣無先後와 理先氣後로 볼 수 있음을 말하였다. 단순한 질문이지만 성리학의 주요 이론들이 망라되어 있으며 보편이론에 근거한 홍와의 답변은 그가 성리학의 기본 이론들에 정심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주 역시 정밀한 답변을 인정하였다.

문: 솔개와 물고기는 物이고 날고 뛰는 것은 기인데 『章句』에 리의 작용이 아닌 것이 없다고 한 것은 왜인가?

답: 날고 뛰는 것이 비록 기이지만 날수 있게 하고 뛸 수 있게 하는 것은 리의 작용이다. 날고 뛰는 것은 리의 드러남인 것이다.

비: 대체는 잘 파악하였다. 리만을 말한 곳은 기를 겸하여 말할 필요가 없을 경우이다.³⁰⁾

‘鳶飛魚躍’은 도의 보편성을 단적으로 표현한 구절로 유명하다. 하늘에 솔개가 날고 연못에 고기가 뛰어오르는 것에서 『중용』의 저자는 천지사방에 도가 流行하고 있음을 본 것이다. 날고 뛰는 동작들은 리기의 측면에서 말하자면 기인데 주자는 리의 작용이 아님이 없다고만 한 까닭을 한주가 물었다. 홍와는 기의 근저에 리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發者, 氣; 發之者, 理’라는 理氣二元論의 기본 이론으로 대답한 것이다. 한주는 홍와의 대답을 인정하면서

具之形, 理無掛搭處, 則不得不先言氣也. 蓋不可分先後, 亦不可謂無先後, 知其有先後, 而又知其先後之不相離, 方可. 批: 說得精.”

30) 『弘窩先生文集』1, 252~253쪽: “問: 鳶魚是物, 飛躍是氣, 而章句謂莫非此理之用, 何歟? …… (答): 飛躍雖是氣, 而能飛能躍者, 理之用也, 所以飛躍理之體也. …… 批: 大體固好, 而單言理處, 不必兼言氣.”

도 주자를 변호하여 주자가 리만을 말한 곳은 당연히 기가 같이 있기 때문에 굳이 드러내어 말할 필요가 없을 경우라고 하였다. 자신의 主理에 대한 신념을 나타낸 설명이기도 하다.

이상에서 살펴본 3조의 문답은 성리학자들이 『중용』을 어떻게 공부하였는지를 잘 보여준다. 고전을 새롭게 해석하여 신유학의 이론을 연마하였던 것이다.

2) 『중용』의 논리적 심화

『중용』은 어렵다. 형이상학적 용어와 개념들이 논의의 중심에 있고, 일관된 맥락을 찾기도 쉽지 않다. 그래서 주자도 “초학자들은 이해할 수 없다.”³¹⁾ 거나, “『중용』은 보기 어렵다. ……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³²⁾는 말들을 한다. 그러므로 『중용』을 독파하기 위해서는 표면의 의미를 이해하는 단계를 넘어 행간을 음미하며, 유학의 근본이념들을 찾아가야 한다. 몇 조목을 살펴 보기로 한다.

문 : 제1장의 『장구』에서 ‘修道之謂教’를 해설하면서 戒懼謹獨으로 설명하지 않고 범범하게 禮樂刑政을 말한 것은 왜인가?

답 : 계구근독은 현자에게 가르칠 수 있으나 어리석고 불초한 자에게는 시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드시 예약형정이라야만 천하에 통용될 수 있으니, 어리석고 불초한 자와 지나치고 모자란 자도 모두 가르칠 수 있는 것이다. 대체로 계구근독은 스스로 다스리고 스스로 닦는 일이기에 만민을 가르치고 천하의 기준이 되게 하기에는 두루 포괄되지 못함이 있다.

비 : 대강을 얻었다.³³⁾

31) 『中庸章句·讀中庸法』：“中庸初學者未當理會。”

32) 『中庸章句·讀中庸法』：“中庸之書難看，……都無理會。”

33) 『弘窩先生文集』1, 247-248쪽：“問：第一章章句修道之教，不以章內戒懼謹獨明之，而泛言禮樂刑政，何歟？（答）：戒懼謹獨，可教於賢者，而不可施於愚不肖也。必用禮樂刑

『중용』의 첫 문장은 본성은 하늘이 부여한 것이며 그 본성대로 사는 것이 갈 길이라고 한다. 그 본성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을 본성대로 살도록 만들어, 가야할 길을 제대로 가게 하는 것이 교육이라고 하였다. 그 교육의 내용을 주자는 예악형정이라고 하였다. 예악형정을 통해 부족한 인간을 바로잡는다는 것이다. 한주는 도에 입각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예악형정 따위의 외면적 강제보다는 경계하고 두려워하며 내면에 부끄러움이 없는 자율적 수양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주자는 딴 말을 하고 있다. 이 점을 홍와에게 물었다. 홍와의 대답은 대상에 따라 교육의 내용이 달라져야 한다는 일반론이다. 한주는 마음에 들지 않았다. “대강을 얻었다”라고 대답하고 만다.

문 : 사람의 이목은 깊은 잠이 들었을 때를 제외하고는 보지 않고 듣지 않을 때가 없다. 『중용』에서 보지 않을 때 戒愼하고 듣지 않을 때 恐懼하라고 한 것은 왜인가?

답 : 깊은 잠이 들었다고 말할 필요도 없고, 보고 듣지 않을 때가 언제인가를 말할 필요도 없다. 다만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사물을 접하지 않았을 때라고 하는 것이 옳다. 어찌 이목이 있으면서 보고 듣지 않을 때가 있겠는가! 보고 듣지 않을 때 계신공구 한다면 보고 들을 때의 계신공구는 저절로 알 수 있는 것이다.

비 : 말이 매우 분명하다.³⁴⁾

愼獨의 의미를 투박하게 물었다. 홍와는, 보고 듣지 않을 때는 ‘獨’의 순간을 말하는 것이며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사물을 접하지 않았을 때가 바로

政, 然後可以通行於天下, 而愚不肖過不及者, 並可以爲教也. 蓋戒懼謹獨, 只是自治自修之事, 而至於訓萬民法天下, 則有不能包該矣. 批 : 大槩得之.”

34) 『弘窩先生文集』1, 248~249쪽 : “問 : 人之耳目, 除卻爛睡, 未有不睹不聞之時, 則中庸言戒愼不睹, 恐懼不聞, 何歟? …… (答) : 不須言爛睡, 又不須言何時爲不睹聞時也. 但以心未發, 物未接時當之, 可也. 豈有有耳目而無睹聞之時乎! 既曰戒懼乎不睹聞, 則睹聞時戒懼, 自可見矣. …… 批 : 說甚明.”

이 때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신독은 남이 모르는 그래서 나만이 아는 그 마음자리이며, 그 순간에도 계신공구가 된다면 매 순간마다 계신공구가 될 수 있음을 말한다. 신독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다. 批辭를 보면 한주는 매우 흡족했다.

문 : 증자는 부자의 도는 충서뿐이라고 하였고 자사는 (충서가) 도에서 멀지 않다고 하였는데, 동일한 충서에 어찌 성인과 배우는 자의 구별이 있는가?

답 : 스스로 최선을 다하고자 하지 않아도 저절로 다하게 되고 스스로 자신을 미루어 남을 헤아리려 하지 않아도 저절로 하게 되는 것은 성인의 충서이다. 최선을 다하리라는 마음이 있고 난 뒤에 최선을 다하고 나를 미루어 헤아리려는 마음이 있고 난 뒤에 하게 되는 것은 배우는 자의 충서이다. 같은 충서이지만 저절로 그러한 도의 뜻이 있고 도에 합치되기를 구하는 뜻이 있는 것이다. 저절로 그러한 것이 바로 도이고, 합치되기를 구하는 것은 도에 어긋나지 않는 것이다.

비 : 말이 매우 정밀하다.³⁵⁾

『논어』에는 증자가 공자의 도를 忠恕 두 글자로 개괄한 대목이 있다. 이후 충서는 공문 심법의 핵심을 단적으로 표현한 개념으로 인정되었다. 그런데 『중용』에는 배우는 사람이 충서를 실천한다면 도에 근접할 수 있다고 하였다. 두 곳의 의미지향이 다른 것이다. 이 점을 물었다. 홍와의 대답이 명료하다.

문 : 齊家の 도리는 먼저 부모에게 효순하고 난 뒤에 형제처자에게 이르는 것인데, 15장에서 처자를 먼저 말하고 부모를 뒤에 말한 것은 왜인가?

35) 『弘窩先生文集』1, 253-254쪽 : “問 : 曾子曰: ‘夫子之道, 忠恕而已!’ 子思則曰: ‘違道不遠.’ 同一忠恕, 何以有聖人學者之別? (答) : 不待盡己而自盡, 不待推己而自推者, 聖人之忠恕也; 盡己之心而後盡, 推己之心而後推者, 學者之忠恕也. 同一忠恕, 而有自然底道之意, 有求合乎道之意. 自然則即是道也, 求合則不違道也. …… 批 : 說得甚精.”

답 : 처자와 화합하고 형제와 화락하는 것이 부모에게 효순하는 도리가 아님이 없다. 만약 부부가 서로 껍박하고 형제가 원수가 된다면 날마다 기름진 음식으로 봉양하더라도 부모는 근심하게 될 것이다. 부모에게 효순하고자 하는 자가 어찌 먼저 형제처자와 화락하지 않겠는가?

비 : 말이 가장 정밀하다.³⁶⁾

『시경』에는 집안을 잘 다스려 처자형제와 화락함을 찬미한 시편이 있다. 공자는 이 시의 내용에 감동하여 집안이 이렇게 화락하다면 부모가 편안하겠다고 찬탄하였다. 논리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 『중용』의 이 단락을 두고 한주는 굳이 발문한다. 처자형제의 이야기가 앞에 나오고 부모의 이야기가 뒤에 나온 이유를 물은 것이다. 한주의 발문이 영성하다. 시를 읽고 공자가 찬탄하여 말한 것이니 부모가 뒤에 나올 수밖에 없다. 아마 한주는 이 단락을 가지고 제가에 있어서의 경중을 알리고자 하였을 것이다. 이 영성한 질문에 홍희는 성실하게 답변한다. 한주는 만족해한다.

3) 『중용』의 구조적 이해

역대의 유학자들은 『중용』의 논리적 구조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 난해한 이론을 꿰어주는 구조를 파악함으로써 좀더 명료하게 『중용』을 이해하고자 한 것이다. 주자가 『중용』을 33장으로 나누고 이를 다시 크게 네 부분으로 구분한 것도 바로 『중용』을 구조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주자 이후에도 『중용』의 구조에 대한 많은 견해들이 있어 왔는데, 장절과 단락의 구분부터 개념의 선후 문제까지 다양한 견해들이 있다. 이와 관련된 몇 조목을 살펴본다.

36) 『弘窩先生文集』1, 256쪽 : “問：齊家之道，先順於父母，然後可及於兄弟妻子，而十五章，先妻子而後父母，何歟？（答）：和妻子，樂兄弟，莫非順父母之道。若夫妻相虐，兄弟爲讎，則雖日用三牲之養，必令父母愁矣。欲順於父母者，豈可不先和樂於兄弟妻子！批：說得最精。”

문 : 九經에서 '尊賢'이 '親親'의 앞에 있고 '柔遠人'이 '懷諸侯'의 앞에 있으니 왜 親疎尊卑의 순서가 바뀌었는가?

답 : 정자는 존현을 앞세우지 않으면 친친의 뜻을 알 수 없다고 하였고 자하도 '賢賢'을 말하면서 '事父母'보다 앞에 두었으니 존현과 친친을 친소로서 말하는 것은 부당하다. 마땅히 배움에 나아가는 순서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른바 遠人은 사방의 오랑캐나 외국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장사치나 나그네 같은 류의 사람들을 말한다. 그러므로 국내의 장사치나 나그네를 돌보는 것이 외방의 제후를 보살피는 일보다 위에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것을 존비로 보는 것은 부당하며 마땅히 원근의 구분이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비 : 좋다.³⁷⁾

『중용』에는 천하와 국가를 경영하는 아홉 가지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 두 번째가 현자를 존중하라는 것이고 세 번째가 혈족을 대우하라는 것이며, 여덟 번째가 멀리 있는 사람을 잘 돌보라는 것이고 아홉 번째가 제후들을 보살피라는 것이다. 한주는 이 순서가 문체가 된다고 생각하였다. 이 순서가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의미가 있다면 문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친소와 신분을 중시하는 유학의 관념으로 볼 때 나와 가까운 혈족보다 타인인 현자에게 먼저 정성을 쏟아야 하고, 나의 울타리인 제후들보다 먼 오랑캐들에게 마음을 써는 것이 이상하기 때문이다. 홍와의 대답이 좀 억지스러워 보인다. 그래서 한주도 그냥 '好'라고만 하였다.

문 : 세간에서는 陸氏가 '尊德性'의 학문을 주로 하였다고 한다. 그렇다면 육씨가 먼저 큰 공부를 확립하였고 주자는 도리어 미치지 못하는 바가 있

37) 『弘窩先生文集』1, 259~260쪽 : “問: 九經, 尊賢先於親親, 柔遠人先於懷諸侯, 何其親疎尊卑之易序歟? (答): 程子曰: ‘不先尊賢, 則不能知親親之義.’ 子夏所言賢賢, 亦先於事父母, 則尊賢親親, 不當以親疎言, 而當以進學次序看也. 所謂遠人, 非指遠夷外國之人也, 乃如商賈賓旅之類也, 則寬恤國內之商賈賓旅, 固不當在於懷外方諸侯之上乎! 此則不當以尊卑看, 而當以遠近之別言之也. 批: 好.”

는 것이 된다. 程允夫가 '道問學'으로 재실의 이름을 삼았을 때 주자가 존덕성으로 바꾸었으니 주자도 스스로 존성을 위주로 하였던 것이다. 또한 존덕성과 도문학은 다만 바퀴와 날개의 좌우와 같이 서로 보완하는 것이라고 말하니 본말선후의 순서가 없는 듯한데?

답 : 주자는 陸子壽 형제의 기상이 몹시 좋으나 강학을 다 폐하고 오로지 실천에만 힘쓴다고 하였다. 이미 도문학의 일을 폐하였다면 존덕성은 우리 유가에서 덕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불가의 止觀見性·兀然頓悟의 부류이다. 어찌 먼저 큰 공부를 확립하였다고 할 수 있겠는가! 정씨 재실의 편액을 비꾼 것은 정윤부가 문장에 힘쓰고 심학에는 소홀했기 때문에 재실의 이름으로 그 병통을 고치고자 한 것인가? 아니면 도문학은 존덕성을 보조하는 것이고 존덕성이 도문학의 근본이기에 근본을 들어 힘쓰게 하였던 것인가? 이 둘은 바퀴와 날개의 좌우처럼 서로 보완하는 것이지만 실상을 따진다면 덕성은 하늘이 부여하여 만사의 근본이 되고 묻고 배우는 것은 그 덕성을 회복하기 위한 쓰임이니 어찌 본말선후를 말할 것이 없겠는가!

비 : 아주 좋다.³⁸⁾

陸氏は 주자와의 아호 논쟁으로 유명한 陸九淵을 말하고, 子壽는 육구연의 형 陸九齡의 자다. 주지하다시피 鵝湖寺에서 학문방법론을 두고 벌인 논쟁에서 육구연은 나에게 이미 있는 선천적 덕성에 주목하였고 주자는 묻고 배우는 후천적 학습을 중시하였다. 그러나 주자는 존덕성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존덕성과 함께 도문학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인데, 이 부분을 한주가 물은 것이다. 도문학 없이 존덕성만을 강조한다면 見性を 추구하는 불교와 같아지

38) 『弘窩先生文集』1, 262~264쪽 : “問：世以陸氏爲主尊德性之學，如是則陸氏先立乎大者，而朱子反有所不逮也。程允夫以道問學名齋，而朱子改之以尊德性，是則朱子自主尊性也。且道尊性道學，只如輪翼之相須，則似無分於本末先後之序。(答)：朱子曰：‘子壽兄弟，氣像甚好，卻是盡廢講學，而專務踐履。’蓋既廢道問學一事，所謂尊德性者，非吾儒所謂尊之，便是佛氏止觀見性，兀然頓悟之類也，豈可謂先立其大者耶！至若程齋改扁，蓋以允夫役於文章，疏於心學，故或者名其齋，而攻其病歟？抑道問學爲尊德性之資，尊德性爲道問學之本，故舉其本，而勉進之歟？二者果如輪翼之相須，然究其實，則德性天賦者，而爲萬殊之本，問學乃是復其性之用，則亦豈無本末先後之可言耶！批：甚好。”

기에 이것을 우려하여 주자가 도문학을 강조하였음과 존덕성이 근본임을 밝히는 홍와의 대답에 한주도 흔쾌히 동의한다.

문 : ‘篤恭’ 두 자가 이미 『중용』의 極功인데 반드시 ‘무성무취’로서 지극하다고 하는 것은 왜인가? 또한 “上天之載, 無聲無臭”는 태극이 무극에 근본한다는 뜻인데 마지막에 이야기하고 性命이 사람에게 있음으로 시작한 것은 왜인가?

답 : 독공이 비록 극공이지만 하나의 리로 귀결되는 부분에서는 부족함이 있다. 그러므로 무성무취의 하늘을 말한 것이다. 성은 하늘이 명하여 사람에게 있게 된 리이니 시작하면서 일리를 말한 뜻에 해로울 것이 없다. 마지막에 무성무취의 하늘을 말한 것이 바로 첫머리에 천명의 천을 말한 것과 같으니 머리가 꼬리를 관통하고 꼬리가 머리에 상응하니 어찌 성명으로 시작하는 것이 혐의가 되겠는가!

비 : 그렇다.³⁹⁾

『중용』의 마지막 33장을 두고 문답하였다. 독공은 주자의 설명에 따르면 드러나지 않는 敬, 즉 敬의 실천이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루어지는 단계이다. 『중용』의 극공이라는 말은 바로 주자의 말이다. 이미 극공인 독공을 이야기한 뒤 다시 무성무취를 이야기한 까닭과, 1장에서는 천명지성을 이야기하고 마지막장에서 도체를 이야기한 이유를 물었다. 홍와의 대답 가운데 『중용』의 1장과 마지막장이 서로 수미상응한다는 견해는 이미 여러 학자들이 언급한 것이다. 한주는 긍정적으로 대답하였는데, ‘然’이라는 한 글자로 끝낸 어투가 만족스러워 보이지는 않는다.

이상에서 홍와가 논리구조부터 성리학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중용』을 이

39) 『弘窩先生文集』1, 264쪽 : “問 : 篤恭二字, 已是中庸之極功, 而必以無聲無臭爲至, 何歟? 且道上天之載, 無聲無臭, 乃太極本無極之意, 而言之於終, 但以性命之在人者起頭, 何歟? (答) : 篤恭雖是極功, 而猶欠於合一理處, 故便說無聲無臭之天也. 性是天之命, 而在人之理, 則不害爲始言一理之義也. 末言無聲無臭之天, 便是起頭處天命之天, 頭以徹尾, 尾以鎖頭, 豈以性命起頭爲嫌耶! 批 : 然.”

해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자료의 제한으로 『중용』과 관련하여 살펴보는 것으로 그쳤지만, 이 자료로 미루어 홍화가 『중용』 뿐만 아니라 다른 경서들도 조예가 깊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5. 맺음말

주문팔현의 한 사람으로 당대에 명망이 높았던 홍화이지만 학문적으로 접근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른다. 선행연구가 전혀 없기 때문에 쉽지 않고, 자료가 많지 않아 어렵다. 특히 주자료라고 할 수 있는 문집에 그의 학문세계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가 적기 때문에 더욱 곤혹스럽다. 그러므로 이 시점에서 홍화의 학문세계를 살펴보는 일은 개괄적이 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 그러나 본고를 토대로 본고보다 예리한 시각으로 홍화의 자료들을 검토한다면 홍화가 성취한 각 방면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한주의 문인으로서 스승의 학설이 꺾박받을 때 스승의 학설을 고수하며 적극적으로 변무에 나섰던 인물, 경학과 예학·문학 및 역사학 등 다방면에 걸친 학문적 소양이 탁월하였던 인물, 우리 역사를 정리하며 망국의 아픔을 달랬던 인물, 『중용』을 구조에서부터 논리까지 깊이 이해하고 있던 인물. 홍화는 이런 모습들로 한동안 필자의 기억 속에 남아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中庸』.
『近思錄』.
『朱子語類』.
李震相, 『寒洲全書』1·2, 아세아문화사 영인, 1980.
李斗勳, 『東華世紀』, 필사본.
李斗勳, 『高靈誌』, 필사본.
李斗勳, 『弘窩先生文集』1·2, 경인문화사 영인, 1974.
李承熙, 『韓溪遺稿』6·7, 국사편찬위원회 간, 1976.
李晚燾, 『響山日記』, 국사편찬위원회 간, 1985.
劉明鍾, 『朝鮮後期 性理學』, 이문출판사, 1985.
홍원식, 『한주 이진상의 생애와 사상』, 예문서원, 2008.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편, 『응와 이원조의 삶과 학문』, 역락, 2006.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편, 『한주 이진상 연구』, 역락, 2006.
이세동 옮김, 『대학·중용』, 을유문화사, 2007.
금장태, 「영남성리학의 전통과 쟁점」, 『민족문화논총』 11, 1990.
우인수, 「한주의 경세론—『畝忠錄』에 나타난 한주의 국정개혁론」, 『한주 이진상 연구』,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편, 2006.

Abstract

The Life and Academic Attainment of Hongwa, Lee Doohun

Lee, Se-Dong

Hongwa, Lee Doohun is a Confucian scholar from Koryung county, Kyungsang province who was born in the late Chosun dynasty and passed away in the early age of Japanese imperialism. Learning from Hanju, Lee Jinsang, the greatest Confucianist those days and reaching academic attainment, he gained recognition as one of eight brilliant disciples. He stuck with teacher's theory in favor of it even when Hanju's academic statement was severely criticized as heterodoxy, and was supported by the class of Confucians due to his positive elucidation for Lee's opinion. He kept his way even in bad times when many colleagues turned into timeservers and left master.

Hongwa established a quite level of achievement in every area of learning. Especially he showed excellence in 'Yehak' and left behind a number of letters related to 'Yeseul', of which writings are self-consistent and lucid. His literary attainment let him create more than 400 poems and among these are many works just aimed to mourn death or communicate personally. In accordance to the tradition that confucianists weren't usually absorbed in writing poems, he also didn't produce works with unique inspiration but some outstanding ones can be found now.

Observing the downfall of Chosun dynasty and organizing our history, he endured those humiliated days. His historical record, 'Donghwasegi' describing the historical facts from ancient Chosun to the 2nd year of King Joongjong, Chosun dynasty, indicates his appreciation and culture toward history. This book wasn't yet introduced to the academic world and so requires more research.

Hongwa showed a deep understanding to 'Zhongyong' as an advocate of Sung Confucianism. Beyond simple understanding of theory itself, he extensively comprehended 'Zhongyong' in various aspects such as

theoretic structure and the viewpoint of Sung Confucianism.

Key Word

Lee Dohun, Lee Jinsang, Sung Confucianism, the school of Hanju, Donghwasegi, Zhongyong

- 논문투고일 : 2008.6.13. 심사시작일 : 2008.7.14. 심사완료일 : 2008.7.31.